

# 마음 열기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시다.

최근에 겪은 일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13장 1-9절, “아직 기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책망하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1절). 이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과 질병, 죽음은 무조건 죄 때문에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한 이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여기며, 오히려 그들의 죽음에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2절). 사람의 죽음이 죄로 인해 온 것이고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의 때와 종류는 무조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과 고난은 자연스럽게 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난이나 죽음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자들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예로 드시며, 살아남은 자들이 죄가 없어서 살려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4절). 그러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3,5절).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죄 때문이라 판단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은혜이자 나의 의로움의 증거이며, 고난과 죽음은 징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본질과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땅의 영양분만 버린다고 찍어버리라고 명합니다(6-7절).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유대교인들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가득 차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열매를 위해 주인은 무화과나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찍어버리라 할 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8-9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를 충분히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찍혀서 버려질 때가 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찍혀서 버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맺음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참으심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며 판단하기보다, 나의 죄와 악함을 돌아보고 깨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나아가기

## 말씀의 은혜를 나눙시다.

1.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실패를 보았을 때, 나는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인가요? 되돌아 봅시다.
2.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있나요?

##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타인의 허물을 보며 판단하고, 정작 내 죄에는 관대했던 영적 교만을 회개합시다.
2. 날마다 깨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먼저 깨어 회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 신앙백과 \_ “형성적 관점 :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흔히 공동체를 “기능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쉽게 말해 공동체를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들 때 지지해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를 “형성적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빛으시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관점입니다(행17:26-27).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실패가 일어날 때, 어떠한 관점이냐에 따라 관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적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즉 내가 중심에 있을 때에는 갈등을 ‘나 vs 타인’의 구도로 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체 활동을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결국 내 외로움을 채우고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성적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즉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등을 ‘나 vs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봅니다. 갈등을 통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나도 아무 조건과 보상 없이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존재 그대로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 생활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의 이상과 죄성을 폭로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것은 즉시 믿음의 열매와 참된 예배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땅에서의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타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용서를 베풀며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삶으로 증명해 내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수단입니다. 공동체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형성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결코 빛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신승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장임을 깨닫고, 신승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5월 24일

# 아직 기회가 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